

Bookids

엄마와 함께 보는 재미있는 책 이야기_북키즈

www.iqeqcq.com

발행인 김재철/편집인 김은자 김혜영 추진희 / <1호>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간_동원 책꾸러기 35기 이정민(6세)
아빠가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엄마랑 정진(동생)이는 모래로 공룡을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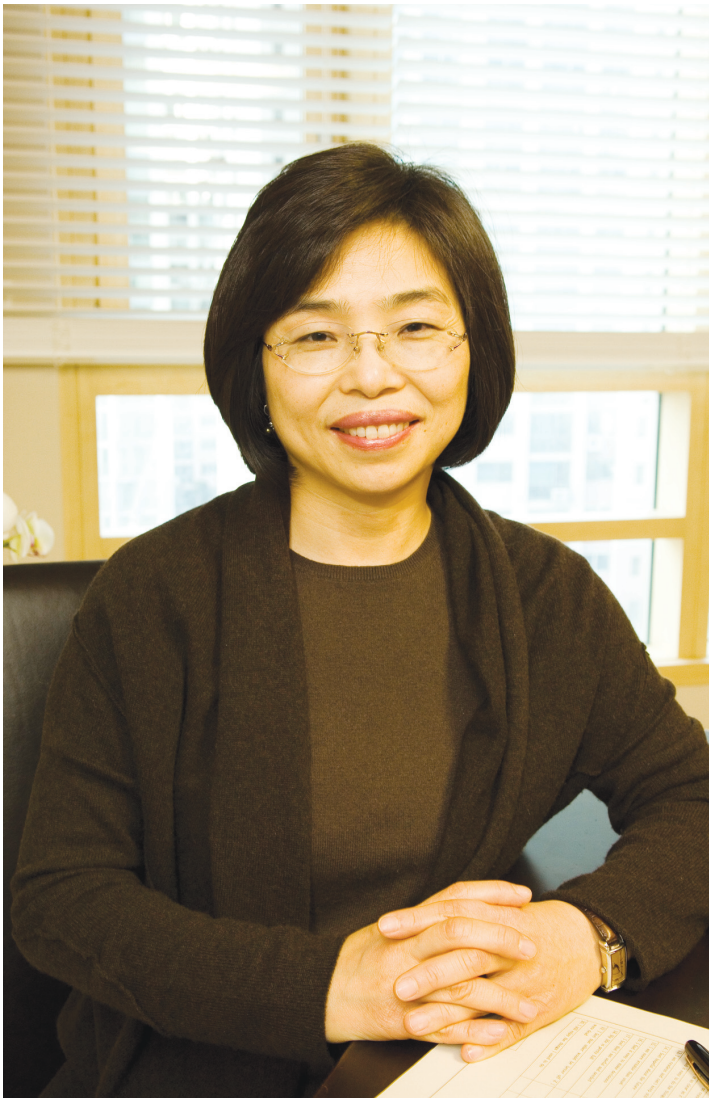
동원책꾸러기의 첫번째 육아서 저자인터뷰

나(I)를 알면 아이(i)가 보인다

지난 4월 28일,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육아서를 집필한다는

박경순 박사를 만났다. 아담한 체구의 그녀는 한 시간 내내 분명하고 힘있는 어조로 답변했다. 그리고 강조했다. 마음이 깊으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여의도의 한 레스토랑에서 나눈 박경순 박사와의 브런치 인터뷰, 그녀가 이 세상 엄마들에게 전하고 싶은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사진제공 박경순박사 홈페이지(www.kspark.co.kr)

평일 오전 11시, 아침 겸 점심 식사를 마친 박경순 박사에게 맨 처음 물었다. 대체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육아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아이를 키우는데 정신분석학이라는 거~참한 학문이 필요할까 싶은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의미심장했다. 마음의 심층을 다루는 정신분석학이야말로 아이를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론이라는 것. 인간의 감정에는 층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층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만약 이 기본적인 ‘감정의 층’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어도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성향과 기질은 대체 어떤 것일까?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박경순 박사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아이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환경과 더불어 변화한다는 것.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질러 놓은 채로 놔두는 것이 편한 아이가 있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다. 이것은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빠르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뭔가를 하려 할 때, 왼손만큼 익숙해지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성향도 마찬가지. 기질적으로 느리고 굼뜬 아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일을 마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이의 성향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이를 다그치기 보다 조금 기다려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엄마는 아이와 부딪힐 수 있는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아이를 한 층 더 이해할 수 있다.

부모 모두 쌍꺼풀이 있다고 해서 아이가 반드시 쌍꺼풀을 갖고 태어나는가? 그렇지 않다. 외모가 부모와 다를 수 있듯 성향 또한 부모와 다를 수 있다. 또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 때 키가 크는가? 아니다. 초등학교 때 고속 성장했다가 오히려 청소년기에 가서 성장이 멈추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 줄곧 맨 앞 줄에 서있던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쑥쑥 크는 아이도 있다. 아이들의 사고 영역도 이와 같다. 생각의 틀이 일찍 열리는 아이가 있고, 늦게 발현되는 아이가 있다. 부모가 보기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머리 속에서 혼자만의 구상을 즐기는 아이들이 꽤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아이의 성향을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부모의 틀에 맞춰 키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질적으로 온순한 아이라면 부모가 정한 틀에 적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엔 아이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 스스로 자신의 기호(嗜好)를 찾지 못해 특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와 반대로 틀에 얽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이들은

박경순(임상심리학/정신분석학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박사학위

-뉴욕 NYU Psychoanalytic Institute 정신분석 훈련과정 수료(4년)

-고려대·연세대·성신여대 등에서 강의

-New Jersey에서 개인 및 유학생 심리상담

-한국 심리학회 정회원

-한국 임상심리학회 정회원

-현 서울여자 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교수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와 반복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이에 박경수 박사는 “자녀와 똑같은 문제로 세 번 이상 부딪힌다면, 엄마가 한 발짝 물러나라”고 귀띔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이 접근하기 때문에 매번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부모와 자식간의 궁합’이란 것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가 아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그녀는 다시 한 번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기질은 언제쯤 나타날까? 박경수 박사는 “일반적으로 3~5세 사이”라고 알려주었다. 또한 그녀는 “아이들의 성향을 구분 짓는 것 또한 엄마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기 아이들은 말문이 트이면서 질문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런 아이를 두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고 치켜세울 것인지 ‘귀찮은 아이’로 치부해 버릴 것인가는 전적으로 엄마에게 달려있다.

만 3세 전후의 유아기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공격성’과 ‘나르시시즘 (narcissism,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일)’이다. 이 시기부터 아이들은 좋고 싫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다소 공격적인 모습도 보여준다. 엄마들은 당혹스럽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 딱히 가르쳐 준 적도 없거니와 어린 나이에 거부의사 표시를 강하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만도 없는 노릇. 어찌하면 좋을까.

박경수 박사는 재치 있게 반문했다. “사각 테이블에 다리가 세 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분명 테이블은 기우뚱거려다 쓰러지거나 다리가 없는 쪽으로는 테이블 위에 아예 물건을 올려놓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감정도 똑같다. 희로애락(喜怒哀樂), 네 가지 감정 중에서 화내고 성내는 것(怒)을 하지 못한다면, 결코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논리다. 따라서 아이의 공격성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아이가 좋고 싫음을 분별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표시다. 박경수 박사는 이때부터 나타나는 나르시시즘 역시 3세 전후의 아이들에게 강렬한 욕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간혹 엄마들은 이것을 아이가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생각해 자제해주려고 하는데, 이 시기의 나르시시즘은 누구와의 비교를 통해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내가 잘났다’라는 식이다. 따라서 그녀는 “아이가 엄마에게 ‘나 잘났어?’ ‘나 잘했지?’ ‘나 최고지?’라고 물으면 무조건 받아주고 칭찬해주어야 자존감이 견고해진다(ego strength)”고 일렀다. 단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유아 발달 과정에서 엄마가 인정해주는 나르시시즘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필수영양소라고 할 만큼 필요하지만,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박경수 박사는 부모와 자식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얼마나 소통을 깊게 하고 있는지 아이는 먼저 알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아이가 먼저 안다는 것일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다. “아이는 악자잖아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싶어한다.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열망은 배가 된다. 경쟁자가 생겼으니 더욱 고군분투할 수 밖에 없다. 그녀의 이론에 따르면 부모 마음 속에는 여러 개의 ‘마음의 방’이 있고 아이들은 각기 다른 방에 자리를 잡고 있다. 대체로 큰 아이에게 뭔가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막내는 월 해도 그저 예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방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를 차별해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아이에게 느끼는 부모의 감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말 대신 손가락 아픈 정도가 차이 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인터뷰 내내 박경수 박사는 “좋은 엄마가 되려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고, 그보다 먼저 아이들을 대하는 엄마 자신의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이들에게 되도록 많은 시킨심을 하라고 주문했다. 선물을 사주거나 사랑한다는 말 대신 가슴으로 뜨겁게 안아주라는 것. 감정의 채색은 눈과 귀가 아닌 피부로 이루어지며 포옹이야말로 부모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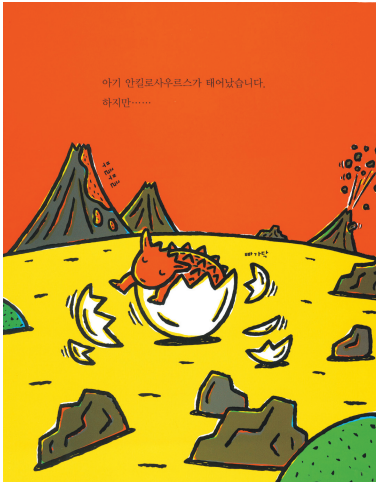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또한 어느 누구도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없다. 다만 아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아이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는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

오는 10월, 동원책꾸러기와 그녀가 함께 만든 첫번째 육아서가 나온다. 엄마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출간을 조금 늦췄다. 그녀의 육아서에는 정답이 없다. 오로지 ‘아이에 따라 다르다’는 원칙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근사한 육아 이론이라도 내 아이와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 결국 아이를 키우는 부모 교육엔 정답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웬지 이번 가을부터 육아 전쟁에 시달리는 엄마들의 아우성이 잠잠해질 것만 같다. 글_책꾸러기 36기 예나맘

〈강의 일정〉

- *1차: 2011.5.26-부모됨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 *2차: 2011.6.2-유아 발달과정에 관한 정신분석 이론들
- *3차: 2011.7.7.-성향, 체질처럼 타고 난다
- *시간: 오전10시30분~오후12시30분
- *장소: 본사 동원빌딩 20층
- *문의 및 신청: www.iqeqcq.com

혹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 신경 쓰이세요? 괜찮습니다.
 값 비싼 운동화를 사주지 못해 속상하세요? 괜찮습니다.
 대신 조금 부족한 아이들에게, 조금 불평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한아름씩 전해주세요.
 마음 속에 사랑이 스며들면 조바심도 투덜거림도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질 테니까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사랑까지 듬뿍 받아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러브 바이러스의 효과를 톡톡히 보여줄 ‘사랑’을 주제로 한 유아도서 베스트 7을 공개합니다.



1 고녀석 맛있겠다(달리) / 글·그림 미야니시 타츠야

작은 아기 공룡 안킬로 사우루스는 태어나자마자 ‘고녀석 맛있겠다’며 군침을 흘리고 다가온 티라노 사우루스를 만납니다. 그때부터 안킬로는 티라노가 아빠고, 자신의 이름은 ‘맛있겠다’인 줄 알고 기뻐합니다. 둘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면서 티라노는 기꺼이 안킬로의 부모 역할을 대신합니다. 박치기, 꼬리 쓰는 법, 울부짖는 법 등을 가르쳐 주는 티라노, 그리고 그런 아빠가 되고픈 안킬로. 하지만 둘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라노는 어느 날 맛있겠다에게 달리기를 제안합니다. 맛있겠다는 아빠 티라노와 함께 살기 위해 뛰도 돌아보기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맛있겠다를 떠나 보낸 티라노에게 부모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의 바람을 투영시키지 않고 아이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길임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삶과 모습 전부를 짚은 동화에서 보여준 미야니시 타츠야의 <고녀석 맛있겠다>는 기쁜 정과 낯은 정이 무게로 저울질 될 수 없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동화 속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녀석 맛있겠다’가 이름이 된 것을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티라노에게 ‘빨간 열매 맛있어’라는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리고 티라노와 맛있겠다는 끈끈한 정과 사랑을 느꼈는지 비록 헤어질 수 밖에 없지만 나중이라도 둘이 꼭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책꾸러기 1기 콩나물**

2 구름빵(한솔수북) / 글·그림 백희나

뛰어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구름빵>은 독특한 ‘반입체 기법’과 ‘빛그림’이 일품입니다. 비 오는 날의 흐린 날씨와 부엌에서 새어 나오는 빛의 밝기를 세밀하게 표현한 점, 종이와 형광으로 만든 납작한 주인공들까지 보면 볼수록 그 표정 하나하나의 차이가 느껴져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내용 또한 기발합니다. 비 오는 날, 아이들은 나뭇가지에 걸린 작은 구름을 주워 엄마에게 가져다 줍니다. 엄마는 그걸로 구름빵을 만들지만 아빠는 급히 출근하는 바람에 아침 식사를 거르고 맙니다. 대신 아이들이 아빠한테 구름빵을 갖다 줍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구름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름빵을 먹은 아이들은 하늘 높이 두둥실 떠오르게 된답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피터팬과 퉁커벌처럼요. 아이들은 만원 버스에 시달리는 아빠를 발견하고 아빠에게 성급히 구름빵을 건넵니다. 구름빵을 한 입 먹은 아빠 역시 버스 창문으로 탈출하여 둥실둥실 사무실로. 덕분에 지각도 면했답니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해 본 다니요? 저 역시 그랬고, 우리 꼬맹이 또한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나는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랍니다. 어쩌면 <구름빵>은 그런 아이들에게 상상으로나마 소원을 풀어주는 하나의 소망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책꾸러기 34기 별헤는어린이왕자**



3 너는 기적이야(책읽는곰) /글·그림 최숙희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지도 전에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두 장, 세 장 페이지를 넘길수록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안 그런 척 몇 장을 읽어 나갔지만 결국 눈물이 책 위로 떨어졌고 울며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챜는지 아이는 제 얼굴을 뽀뽀하며 “엄마 감기 들어요?”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아니라며 다시 책을 들었지만, 읽는 내내 아이는 제 얼굴을 살피기 바빴습니다. 저는 끝내 껴안고 목이 메이도록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는 제 눈물을 말없이 지켜보면서 사그라지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남은 페이지를 다 읽고 나자, 아이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휴지를 뽑아 제 눈물을 닦아주며 슬픈 생각이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슬프다기보다 감동적이어서... 문장 하나하나가 엄마가 느꼈던 감정과 정말 똑같아. 그러다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랬어.” 아이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저를 껴안아주었습니다. 안기는 저가 가슴이 빠근했습니다.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그것도 첫 장부터 눈물이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나이 들면서 눈물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감동에 목이 메어 눈물이 앞을 가린 적도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될 때, 이 책을 가슴에 끌어 안고만 있어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이가 이 책을 보면서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그 날도 오겠지요? **책꾸러기 38기 민중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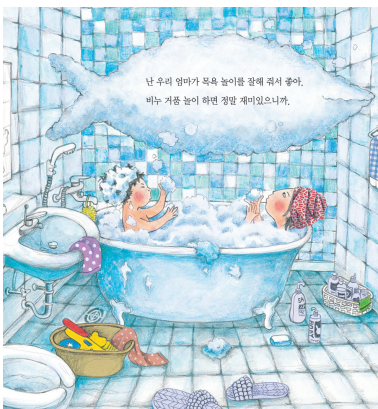
4 아빠는 바빠요(큰나) / 글 다니엘 포세트, 그림 이자벨 샤를리

어느 아빠들처럼 이 책에 등장하는 아빠 역시 무척 ‘바쁜 아빠’입니다. 어느 날 밤, 아빠는 아들과 함께 신기한 별나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말을 써야 하는 ‘다정한 말’별과 감정에 따라 시간이 흐르는 ‘느긋느긋’별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천 개의 문’ 별에서 그만 아들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이 캄캄한 아빠는 진심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눈물은 천 개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다정한 말로 마지막 문을 열어 아들을 찾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빠는 다정하게 아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를 대할 때 다정한 말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이가 함께 하고플 때 같이 있어줬는지 뒤돌아 보게 됩니다. 제 딸 아이도 항상 밤 늦게 귀가하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아빠 역시 늦게까지 기다려 준 딸 아이와 마음껏 놀아주고 싶어합니다. 물론 실천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래도 일찍 오는 날엔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을 손수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아빠들도 아이들에 대한 본인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꾸러기 29기 서영수연맘**

5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북뱅크) / 글 로버트 먼치, 그림 안토니 루이스

엄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 안고 포근하고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두 살배기 장난꾸러기가 되어도, 때 쓰고 버릇없는 말을 하는 아홉 살배기가 되어도, 사춘기의 십대 소년이 되어도,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났어도 엄마는 깊이 잠들어있는 아이를 안고 변함없는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아이는 찾아와 여윈 어머니를 감싸 안고 어머니가 불러주었던 그 노래를 고스란히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딸을 품에 안고 그 노래를 이어 나갑니다.

하루 종일 엄마를 정신 없게 만드는 아이들. 그래도 엄마는 잠든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하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꼭 지금의 제 마음과 같습니다. 물론 독립해서 사는 아들을 찾아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은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은 동서양을 구분 지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자식은 항상 어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한없는 사랑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는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인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다시 말해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글_책꾸러기 8기 하늘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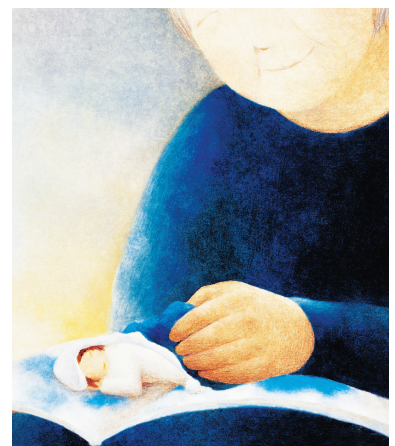
6 우리엄마가 좋은 10가지 이유(아이세움) / 글 최재숙, 그림 문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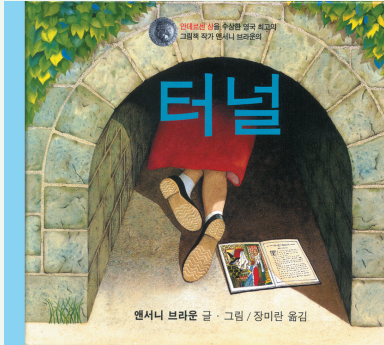
‘난 우리엄마가 뽀뽀대장이라서 좋아’로 시작되는 이 책은 제목처럼 엄마가 좋은 10가지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살짝 곁들입니다. 유머러스하고 사실적인 표현에 웃고 공감하며 읽어 나갔는데, ‘난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그냥 좋아’라는 열 가지 백 가지 이유가 필요 없는 마지막 이 글귀 하나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딱히 어떤 특별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어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책이라는 걸 제 아이의 표정에서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뽀로통하면서 애채데기 같은 엄마의 표정이 재미있습니다. 손뼉 치며 크게 웃는 모습, 화가 나 치켜올라간 눈, 책을 읽어 주며 하품하는 책 속의 엄마는 제 모습이기도 하고 이웃에 사는 다른 엄마기도 하여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책 속의 엄마처럼 생기 넘치고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나서 칠순이 다 되어가는 친정 엄마가 좋은 이유를 떠올려 봤습니다. 딸 아이에게 여섯 개 밖에 없느냐고 투덜땀던 저는 고작 한 가지 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곁에 계셔 주시니까~!” **글_책꾸러기 8기 새물내**

7 책 읽어주는 할머니(글로연) /글 김인자, 그림 이진희

외손녀 민정이는 외할머니께 매일 전화로 책을 읽어 드립니다. 글자를 모르시는 할머니는 민정이가 책을 읽어 드리면 세상이 환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손녀딸이 읽어 드리는 그림책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일 년 후, 온 가족이 모인 할머니의 여든 살 생일 잔치날,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책 한 권을 읽어 내려갑니다. 일 년 동안 민정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읽어드렸던 바로 그 책. 할머니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읽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밤 민정이에게 그림책을 읽어 줍니다. 이 책의 백미는 책 속에 또 하나의 책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민정이가 할머니께 읽어 드린 책 속의 주인공은 펭귄입니다. 새이지만 하늘을 날 수 없는 펭귄과 글자를 읽지 못하는 할머니는 닮은꼴입니다. 책을 읽고 싶은 할머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펭귄. 할머니가 책을 끝까지 다 읽었을 때 비로소 펭귄도 하늘을 날아갑니다. 책 읽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책을 읽는 아이들과 읽어 주는 엄마들이 외할머니와의 사랑과 추억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소망과 이루고자 하는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끝내는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글_책꾸러기 36기 희수마음**





〈터널〉 글·그림_앤서니 브라운/출판사_논장

눈만 마주쳤다 하면 으르렁대는 오빠와 여동생.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밖으로 나간 두 남매는 우연히 터널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빠는 주저 없이 터널 속으로 먼저 들어가 버리지만 남겨진 여동생은 두려움으로 망설입니다. 결국 오빠를 뒤쫓아 들어갔지만 그곳은 역시나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하지만 합니다. 초초해진 동생은 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발견한 것은 돌덩이로 굳어 버린 오빠의 조각상. 놀란 동생은 차가운 오빠를 끌어 안고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딱딱했던 오빠가 점차 부드러워지더니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둘은 이제 따뜻한 눈빛을 주고 받는 의좋은 남매가 되었습니다.

형제자매간의 정을 돈독히 쌓을 수 있는 책 <터널>. 이 책을 읽고 어떤 독후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세 명의 책꾸러기 맘과 여섯 명의 책꾸러기들이 펼치는 즐거운 독후활동 모습을 공개합니다.

〈독후활동1〉 책 도미노 게임

참여한 아이들: 박규현(8세·남), 박유주(6세·여)

준비물: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림책 여러 권

활동: '도미노' 놀이라 해서 아무 책이나 세워 놓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책이 가진 공통점을 찾아 도미노처럼 책을 길게 연결하는 놀이. 책의 내용이나 주제는 물론 책 표지의 색깔이나 글자 방향, 두께, 작가, 그림 유형까지 여러 방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책을 꼼꼼히 살펴야 하므로 아이들이 책의 각 요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원래 다양한 책들을 미리 꺼내 놓고 찾아보도록 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방법을 설명한 후 책장에서 공통되는 책을 찾아 이어 보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찾은 이유를 각각 설명하는데, 둘째 아이는 아직 어려서인지 공통점이 연속 중복됐다. 그 중에는 엄마인 내가 설명을 하면서 골라준 것도 있고, <꿀벌>은 곤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제목이 두 글자라 골랐다고 했다. 각자 찾은 책 중에서 가장 재밌는 책을 고르라 하니, 첫째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누군지>를, 둘째는 <엄마, 나만 믿어!>를 골랐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들이 고른 책으로 책 읽기를 했다. _책꾸러기 6기 엄마유치원♥



〈독후활동2〉 터널 만들기의 달인 개미집 따라잡기

참여한 아이들: 서석준(7세·남), 서형준(3세·남)

준비물: 전지1장, 휴지심, 풀, 색연필, 먹물, 면봉 등

활동: 터널을 만들어 집을 짓는 개미의 생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직접 종이 위에 표현해봄으로써 개미에 대해서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에 앞서 자연 관찰 책을 통해 개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데, 특히 개미집의 역할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지에 휴지심을 붙여 개미집(터널)을 표현하고, 개미집의 각 방(여왕개미 방, 알 돌보는 방, 먹이 저장 방 등)을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해준다. 개미와 개미 알은 면봉에 먹물을 찍어 표현한다. 이 때 자연 관찰 책을 통해 개미의 몸을 관찰한 뒤 정확하게 그리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좋다. 전지 위에 다 만들어진 개미집을 세워 붙여 놓고 롤링 볼 게임을 해도 좋다. _책꾸러기 8기 사과상자

〈독후활동3〉 진짜 터널을 만들어요

참여한 아이들: 조은별(9세·여), 조아름(7세·여)

준비물: 일회용 도시락 뚜껑, 석고 가루, 못쓰는 종이 파일, 포스터 칼라, 붓, 솔방울, 테이프, 비닐 장갑, 일회용 젓가락

활동: 일회용 도시락 뚜껑 세 개를 모두 테이프로 붙여 터널 모양으로 만들었다. 생각보다 잘 세워 지지 않아 종일 파일을 지지대로 삼았다. 석고 가루를 물에 넣고 일회용 젓가락으로 잘 저은 후,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도시락 뚜껑에 바르기 시작했다. 첫째 아이는 차가운 느낌이 좋다고 했고, 둘째는 죽을 만지는 느낌이랄까 했다. 5분 정도 지나자 석고는 금세 굳었다. 다음은 포스터칼라로 원하는 위치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것. 물감을 섞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색상의 변화도 만나게 된다. 자신이 칠했던 색 위에 다른 색을 섞어 보기도 하고, 기존의 색 위에 흰색을 덧칠하고서 색이 얼어지자 예쁘다며 좋아했다. 솔방울로 터널의 운치를 더해도 좋다. 터널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잡기. 자꾸 쓰러지려 해서 결국 벽돌을 이용했다. 벽돌 두 장을 꼼꼼하게 은박지로 싼 후 양쪽에 하나씩 균형을 맞추어 주니 튼튼한 터널로 거듭났다. 우리 자매는 완성된 터널 앞에서 즉석으로 인형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_책꾸러기 44기 빠기



♣ 동원 '책꾸러기'란?

동원그룹의 동원육영재단과 중앙일보가 2007년 5월부터 공동으로 후원하는 어린이 도서 무료 지원 사업으로서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책을 신청하면 매달 1,000명씩을 선정해서 1년 동안 한 달에 한 권씩 12권 (매달 1만 2000권)의 책을 보내드리는 '한국형 북스타트(book-start) 운동', '책 읽기 캠페인'입니다.

♣ 책꾸러기가 되려면?

회원가입 → 이달의 책-육아서 중 1권 선택 → 신청사연등 정보 작성 → 신청완료

0세에서 만6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책꾸러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달의 책 메뉴에서 첫 달 신청도서 선택, 책 신청하기 클릭한 뒤 아이 정보와 사연을 적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당첨자는 매월 27일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신청 사연을 읽고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책꾸러기가 되셨나요?

전월 28일부터 당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원하는 책 한 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서는 신규 추천도서와 지난 추천도서로 구분되며, 매달 30여 권이 목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첫 달 도서는 육아서로 한정하오며, 두 달 이상 책 신청이 없을 경우 책 발송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택하신 도서는 당월 27일에서 말일 사이에 배송됩니다.

♣ 베스트맘에 도전해 보세요!

책꾸러기에서 보내 드린 그림책으로 아이와 함께 한 독후 활동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뽐내주세요. 정성스럽게 올려주신 글과 사진을 읽어본 후, 심사를 거쳐 우수 가정 한 곳을 뽑아 그림책 100권과 책장을 발송해 드립니다.

♣ 책꾸러기와의 약속(지원 기준)

- 첫째, 한 가정당 당첨의 기회는 한 번이며, 중복(이중) 당첨이 확인되는 즉시 당첨을 취소합니다.
- 둘째, 2개월 연속 책 신청이 없을 경우 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셋째, 한 달에 한 번 이상 책을 읽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저작권에 위배되는 글 제외)
- 넷째,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책 읽는 아이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계 행사 '와책!'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 독후 활동을 체험해 보면서 아이들의 IQ·EQ·CQ·SQ(지적·정서적·창의적·사회적) 능력에 자극을 주고자 합니다. 인기 작가를 섭외하여 강연과 함께 책에 대한 에피소드도 들려주고, 아울러 한 권의 책을 다각적으로 접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놀이 활동을 합니다.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참가 인원은 어린이 50명(보호자 동반, 총 100명)입니다.

♣ 기획 의도

“저는 사람이 모든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요. 지식기반사회, 창조화 사회, 디지털시대 등으로 부르는 이 시대에도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곧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양성에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높은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글로벌경제 시대에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한 동력은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우수한 인재의 육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이 독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의 두뇌발달을 돕는 책 읽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본문 中)-

책꾸러기 엄마의 마음

사랑스런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다정스레 책꾸러기 친구가 되어봅니다
아이 앞에서 나는 성우도 되고 배우도 되지요

아이와 함께 책꾸러기 되어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며
엄마도 많이 배우고 깨닫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따라 동화의 세계에서
영롱한 눈망울로 세상을 알게 되는 책꾸러기
날로 자라는 몸과 함께 호기심도 커지겠지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하니
책을 통해 배운 착한 생각과 좋은 습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귀여운 책꾸러기의 행복한 미래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즐겁게 책꾸러기 엄마역을 합니다